

폭스바겐, '파사트 GT'로 컴백... "중형세단 시장 접수"

**'MQB 플랫폼' 기반 디젤 모델
보행자모니터 등 최신퉴크 탑재
총 6개 색상... 4320만원부터**



Volkswagen

폭스바겐코리아가 2년 여의 공백기를 깨고 한국 시장에 복귀를 선언했다. 첫 스타트는 프리미엄 중형 세단 신형 파사트 GT다.

폭스바겐코리아는 1일 신형 파사트GT를 출시하고 국내 판매가격을 공개했다. 중형 세단 파사트는 수입차 시장에서 판매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던 차다. 신형 파사트 GT는 디젤 모델로 출시되며 MQB 플랫폼을 기반으로 완전히 새롭게 개발됐다. 특히 최신 편의기술을 대거 장착했다.

신형 파사트 GT는 전세대 파사트 대비 휠베이스가 74mm가 늘어나 넓은 실내 공간을 확보했으며, 특히 40mm 늘어난 뒷좌석 레그룸은 역대 파사트 가운데 가장 넓

어졌다.

동급 최고 수준의 안전 및 편의사양도 대거 탑재됐다. 차로나 도로의 가장자리에 있는 보행자를 감지할 경우 가벼운 브레이크 조작과 함께 시청각적 신호로 운전자가 전방 상황을 체크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시스템인 '보행자 모니터링 시스템' 및 정체 상태에서도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한 채 정속 주행을 보조해주는 '트래픽 잼 어시스트' 기능이 국내 출시 폭스바겐 모델 중 최초로 탑재됐다.

이 외에도 '프론트 어시스트', '도심 긴급 제동 시스템', '레인 어시스트', '피로 경고 시스템' 등 최신 안전기술들이 다양하게 적용됐다. 여기에 '헤드업 디스플레이', '액티브 인포 디스플레이', 파노라마



폭스바겐코리아가 새롭게 선보인 신형 파사트 GT를 소개하고 있다.

선루프, 앞좌석 통풍 및 히팅 시트, 스티어링 휠 히팅 기능, 3존 클리마트로닉, 360도 에어리어 뷰 등 최신 편의 기능이 라인업 별로 적용된다.

전체 라인업에 탑재된 1968cc TDI 엔진은 최고출력 190마력(3500~4000rpm)과 최대토크 40.8kg·m이다. 정지상태에서 100km까지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

(제로백)은 7.9초이며, 최고 속도는 233km/h다. 공인 연비는 15.1km/L(도심 13.7km/L, 고속 17.2km/L)이다.

특별 가격은 2.0 TDI 기본형 4320만원, 프리미엄 4610만원, 프레스티지 4990만원, 4모션(사륜구동) 프레스티지 5290만원이다. 4개 트림에는 모두 2.0L 디젤 엔진과 6단 DSG(듀얼클러치) 변속기가 적용됐다. 색상은 우라노 그레이, 퓨어 화이트, 리플렉스 실버, 블랙 오크 브라운, 아틀란틱 블루, 딥 블랙 등 총 6가지다.

파사트는 1973년 첫 출시 이후 전세계 2200만대가 팔렸다. 파사트GT는 유럽형 8세대 모델이다.

슈테판 크랍 폭스바겐코리아 사장은 "파사트는 지난 40여 년간 유럽 시장에서 프리미엄 중형 세단의 기준을 제시해왔던 모델"이라며 "가장 경쟁이 치열한 한국의 중형 세단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낼 것"이라고 전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현대·기아차 기존 차량서도 '카카오 I' 만난다

**'서버형 음성인식' 출고 후도 적용
말 한마디에 목적지·맛집 등 똑똑
향후 업데이트로 모델 확대 계획**



기존에 출고된 현대·기아자동차 차량에서도 음성인식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카카오는 인공지능(AI) 플랫폼 '카카오 I(아이)'의 음성 엔진을 기반으로 현대·기아자동차와 개발한 '서버형 음성인식' 적용 차량이 기존 출고 차량으로 확대된다고 1일 밝혔다.

현대·기아차 멤버십 사이트인 블루멤버스와 레드멤버스에서는 1일부터 내비게이션 업데이트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업데이트에는 서버형 음성인식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도 포함됐다. 이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가장 큰 특징은 서버형 음성인식 기술이 기존 출고 차량에도 확대 적용된다는 것이다.

지난해 제네시스 G70에 첫 적용 이후

소비자들의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서버형 음성인식은 카카오의 통합 인공지능 플랫폼 카카오 I의 음성 엔진을 활용한 일종의 커넥티드카 기술이다. 한 단계로 간소화한 '원 샷' 방식의 음성인식을 통해 목적지 검색과 맛집, 관광지, 정비소 등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음성인식 기능은 스티어링 휠에 위치한 음성인식 버튼을 누른 뒤 원하는 장소를 말하면 사용할 수 있다. 가령 버튼을 누르고 "길 안내 현대자동차 본사"처럼 "길안내 + 상호명"을 말하면 내비게이션 화면에 목적지를 나타내는 식이다.

이 외에도 길안내+완전한 주소, 길안내+00 주변 맛집, 길안내+00 근처 커피숍 등 다양한 방식의 음성 명령도 인식할 수 있어 사용 편의성이 높다. 카카오 I는 다년간 축적된 방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최적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업데이트를 통해 음성인식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현대차 모델은 ▲i30 ▲아반떼 ▲쏘나타 뉴라이즈 ▲i40 ▲그랜저 ▲코나 ▲아이오닉 PHEV 등이며, 기아차는 ▲K7 HEV ▲스팅어 ▲스포티지 ▲쏘렌토 등이다. 표준형 5세대 내비게이션이 지원되며 모델별 연식 등에 따라 적용 여부는 상이할 수 있다.

카카오와 현대·기아차는 이번을 시작으로 향후 추가 업데이트를 통해 카카오 I가 적용된 모델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대·기아차는 지난해 9월 제네시스 G70 탑재 이후 12월과 올 1월 '2018 맥스쿠르즈', 'K5 부분변경 모델'을 출시하면서 음성인식 기술을 탑재하는 등 신규 모델에도 확대 적용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 sesung@

렉서스 '누적 판매 10만대 돌파' 고객감사 이벤트 '풍성'

지난해 역대 최다 판매 기록을 수립한 렉서스 코리아가 고객 감사 이벤트를 진행한다.

렉서스 코리아는 국내 누적 판매 10만대 돌파를 기념해 2월 한달간 고객 감사 시승회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고객들은 이번 행사를 통해 지난해 수입차 베스트 셀링카 2위인 ES300h·프리미엄 하이브리드 플래그십 LS500h까지 다양한 하이브리드 라인업을 만나 볼 수 있다. 시승은 전국 렉서스 전시장에서 진행된다.

렉서스 코리아는 ES300h의 24개월 무이자 할부 프로그램 및 현금 구매 시 료라이프 엔진오일 쿠폰(10년 또는 20만km 엔진오일 및 엔진오일 필터 교환)을 증정하는 구매 혜택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렉서스 코리아는 지난해 국내 시장에서 1만2603대를 판매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국내 자동차 시장에 플래그십 쿠페 LC500h와 프리미엄 하이브리드 플래그십 LS500h 등 잇따라 신차를 쏟아내며 분위기를 이여가고 있다.

양성운 기자

소비자 부담 '확' 줄인다... 부품가격 인하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6200여 개 부품 할인, 최대 18% ↓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수입차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는 사후서비스(AS)에 대한 소비자 부담 줄이기에 나선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6200여 개에 달하는 부품의 권장 소비자 가격을 인하한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수입차 구매를 앞두고 소비자들이 가장 부담스럽게 생각했던 부분은 값비싼 부품과 수리비용이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고객 만족도와 부품 가격 경쟁력 제고를 위해 총 4만여 종의 부품 가운데 빈번히 교체가 이뤄지는 6200여개를 선별해 진행한다. 부품 가격을 평균 5% 낮췄던 작년 대비 인하율을 3.7% 추가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C클래스(W204, 2007년 출시), E클래스(W211, 2002년 출시), S클래스(W221, 2005년 출시) 등 보증기간이 만료된 일부 차종은 교체 빈도가 높은 소모품(에어필터, 브레이크 디스크 등)과 사고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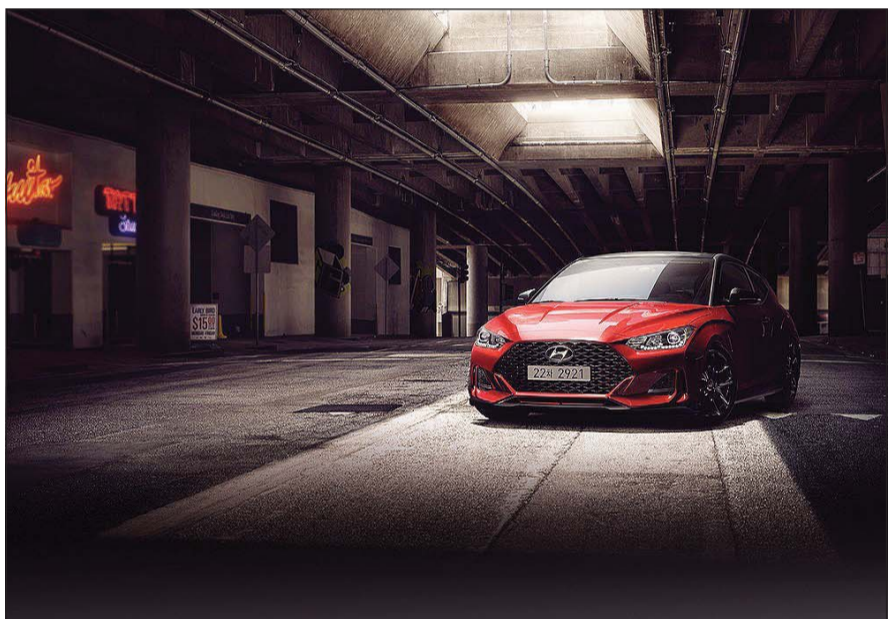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의 전문 정비사가 차량을 점검하고 있다.

리 빈도가 높은 외장부품(범퍼, 휠더, 헤드라이트 등)의 권장 소비자 가격을 인하여 차량을 장기 보유한 고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했다.

브레이크 패드의 경우 권장 소비자 가격이 평균 약 18% 인하돼 C클래스 11만2200원, E클래스 13만6400원, S클래스 18만2600원으로 책정됐으며 후면 범퍼의 가격도 평균 17% 낮아졌다.

메르세데스-벤츠 차량 부품뿐만 아니라 의류, 모델 카 등 일부 컬렉션 제품도 평균 11% 인화된 가격에 구매가 가능하다.

양성운 기자



7년 만에 '첨단기술'로 새단장 '신형 벨로스터' 사전계약 실시

**현대차 사전계약 혜택 다양
스마트슈프트 적용·2135만원~**

현대자동차가 1일 신형 벨로스터의 주요 사양과 가격대를 공개하고 전국 영업점을 통해 사전계약에 나선다.

7년 만에 풀체인지(완전변경)된 신형 벨로스터는 가솔린 1.4 터보, 1.6 터보 등 2가지 라인업(4개 트림)으로 출시됐다.

판매 가격은 트림별로 가솔린 1.4 터보 ▲모던 2135만~2155만원 ▲모던 코어 2339만~2359만원 가솔린 1.6 터보 ▲스포츠 2200만~2220만원 ▲스포츠 코어 2430만~2450만원이다.

현대차에 따르면 신형 벨로스터 외관은 1세대 특징이었던 센터 머플러와 1+2 도어(운전석 쪽 문 하나, 조수석 쪽 문 앞·뒤 2개)란 비대칭 디자인을 계승했다. 동시에 루프를 낮추고 대형 캐스캐이딩 그릴을 새로 적용해 역동적인 이미지를 강조했다.

내부 디자인 면에서는 비행기 조종석과 비슷한 버킷 시트, 입체적인 원형 계기판 등이 특징이다.

현대차는 신형 벨로스터 전 모델에 터보 엔진과 후륜 멀티링크 서스펜션을 장착해 주행성능을 끌어올렸다. 특히 1.6 터보 모델에는 현대차 최초로 오버부스트를 적용한 엔진을 장착하고 6단 수동변속기를 조합해 강력한 주행성능을 발휘하도록 했다.

양성운 기자

실시간 운전상황에 따라 적합한 주행 모드(스포츠, 노말, 에코)를 자동으로 바꿔주는 스마트 슈프트도 현대차 준중형 최초로 전 트림에 탑재됐다. 또 전방 충돌방지 보조 시스템(FC A),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SCC), 후측방 충돌 경고 시스템(BCW) 등 다양한 안전·편의 사양을 갖췄다. 신형 벨로스터는 이달 국내를 시작으로 올해 북미, 호주 등 전 세계에 순차적으로 출시된다.

이 외에도 현대차는 운전 중에도 원하는 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신형 벨로스터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편의사양을 탑재했다. 국내 최초로 적용된 '사운드하운드'는 운전자가 버튼 하나만 누르면 인공지능 음성인식 기능을 활용해 재생 중인 음악에 대한 정보를 검색해준다.

또 카카오와 기술 및 서비스 제휴를 통해 탄생한 '서버형 음성인식 시스템'은 카카오의 통합 AI 플랫폼 '카카오 I(아이)'를 기반으로 내비게이션 검색 편의성과 정확성을 높여준다.

사전계약 고객 중 추첨을 통해 20명에게는 레드 캘리퍼, 대용량 디스크, 브레이크 오일 등 역동적인 주행을 돕는 튜익스(TUUX) 제동패키지를 지원한다. 이달 12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한달간 현대 모터스튜디오 서울에서는 벨로스터와 벨로스터N 실차를 볼 수 있는 체험관도 공개한다.